

# 남녀 청소년의 냉담-무정서 특질과 학교폭력 가해행동의 관계에서 부모-자녀관계의 조절효과\*

송유정\*\* · 이소연\*\*\*

## 초 록

본 연구에서는 남녀 청소년의 냉담-무정서 특질이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모-자녀관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 및 부산 지역에 소재한 중학교 4곳에 재학 중인 청소년 1, 2, 3학년 296명을 대상으로 냉담-무정서 특질 척도(ICU), 부모-자녀관계 척도, 학교폭력 가해행동 척도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변인 간 관계 및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또한, 조절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단순 기울기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남녀 청소년의 냉담-무정서 특질이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냉담-무정서 특질이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남자 청소년과 모-자녀관계의 조절효과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남자 청소년의 냉담-무정서 특질이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칠 때 모-자녀관계가 긍정적인 경우 그 영향이 완화되었고, 이러한 양상은 냉담-무정서 특질의 정도가 낮은 경우에 더 유의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남녀 청소년의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냉담-무정서 특질과 부모-자녀관계의 영향을 통합적으로 탐색하고, 남자 청소년의 냉담-무정서 특질과 학교폭력 가해행동의 관계를 모-자녀관계가 조절한다는 것을 규명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 가해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성차를 인지하고 부모-자녀관계를 향상하는 프로그램이 효과적일 수 있으며,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인 냉담-무정서 특질과 더불어 부모-자녀관계를 고려할 필요성이 시사된다.

**주제어:** 냉담-무정서 특질, 부모-자녀관계, 학교폭력 가해행동

\* 본 연구는 송유정(2020)의 석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으로 2019년 한국아동학회 학술대회에서 포스터로 발표됨.

\*\*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대학원 석사 수료, 제1저자

\*\*\*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부 조교수, 숙명여자대학교 아동연구소 소장, 교신저자,  
leesy@sookmyung.ac.kr

## I. 서론

학교폭력은 타인에게 신체·언어·심리·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행동으로(김원영, 김경식, 2018), 개인이나 또래 집단이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신체·물리적 폭력을 포함해 집단따돌림, 언어적 폭력 등을 행사하는 것으로 정의된다(Olweus, 1993).

이러한 학교폭력은 흉포화되고 조직화되며 심각한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학교폭력 중 언어폭력과 집단따돌림과 같이 정서적 폭력 비중이 증가하고 사이버 괴롭힘과 같이 비대면의 폭력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교육부, 2019). 최근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전년 동기 대비 0.4% 증가했고,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의 심의 건수의 증가율은 32.1%이 기도 하였다(교육부, 2018). 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심각하고 복잡한 유형의 학교폭력이 늘어나고, 피·가해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7). 이처럼 학교폭력 사례가 증가하고 수준도 심각하여,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것을 볼 때(이미영, 2017), 학교폭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이 학교폭력을 경험하는 경우, 신체·정서·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구체적으로는, 학교폭력의 피해경험이 우울증, 학교적응문제, 자아존중감 저하 등의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며(김혜원, 2011; 조아미, 조승희, 2007), 5,958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한 결과, 피해학생의 42.9%가 자살을 생각할 뿐 아니라 자살시도 경험이 있는 학생은 41.8%로,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였다(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4). 학교폭력의 경험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우울증을 유발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문수연, 2018). 학교폭력의 피해경험과 더불어 가해경험 역시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청소년기에 가해행동을 시작한 경우에 성인기까지 가해 행동을 반복하기 쉽고 학업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되었다(Bender & Losel, 2011). 또한 가해경험을 통해, 음주나 흡연과 같은 문제행동을 접할 가능성이 높고(Nansel et al, 2001), 성인기의 반사회적 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Nansel, Craig, Overpeck, Saluja & Ruan, 2004). 이처럼 학교폭력 피·가해 경험은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하며, 이후 성인기를 포함한 발달영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2004년에 학교폭력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었고(유형근, 이필주, 이동갑, 2018), 학교폭력이 발생하여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14일 이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학교폭력 사안을 적극적으로 다루게 하고 있다(교육부, 2018). 이밖에도 학교 차원에서 또래 상담, 인성교육, 폭력 예방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학교폭력 빈도를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박선환, 2019). 그러나 이는 발생 이후의 대응 차원에 가까우며, 학교폭력을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학교폭력 가해행동이 발생하기 이전의 예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소년의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크게 개인, 가정, 학교관련 변인으로 나뉘어 탐색되어왔다. 특히,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은 개인 요인으로(이미영, 2017),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가해행동 요인의 메타분석 결과에서도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요인을 포함한 개인특성이 가해행동을 유발하는데 중요한 변인임이 규명되었다(김원영, 김경식, 2018).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기의 특성파도 연관성이 높다. 청소년기는 과도기적 시기로서 정서적으로 불안정을 경험하여 스트레스와 내적 갈등을 겪고(허혜경, 김혜수, 2010), 또래와의 경쟁이나 긴장관계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면서 쉽게 좌절하거나 분노하여 공격성과 폭력행동을 초래할 수 있다(김혜원, 이해경, 2000).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육구의 좌절이 학교폭력 가해행동을 유발한다고 실증적으로 검증되었다(김경미, 2014). 청소년기의 시기적인 불안정감과 불안이 공격적인 행동으로 표출되기도 하는데(이혜정, 위슬아, 김범준, 2015), 이러한 공격성은 중학생의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다고 보고되었다(신성대, 성도경, 이지영, 2016). 또한, 청소년의 폭력에 대한 허용도와 같은 개인적 요소가 학교폭력 가해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김원영, 김경식, 2018). 더욱이, 가해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개인적 요인인 충동성과 자기중심성의 기질이 강할수록 억압된 감정 폭발과 공격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김경미, 2014). 이를 통해, 청소년의 학교폭력 가해행동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개인 변인에 주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주목할 만한 개인 변인으로 냉담-무정서 특질(callous-unemotional traits)이 있다. 냉담-무정서 특질이란 공감능력의 결여와 무신경한 태도로 정의되며 위협적이고 괴로운 자극에 반응이 덜하며, 처벌에 대한 낮은 민감성을 보이는 특성이다(Barry et al.,

2000). 따라서 높은 냉담-무정서 특질을 가진 청소년은 위협적인 것에 덜 반응하며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 좀 더 심각한 품행문제나 비행 그리고 공격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었다(Frick & White, 2008). 이를 통해, 냉담-무정서 특질이 높은 가해 학생들이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고통에 무신경하며 공감하지 못할 수 있고 학교폭력 가해 시 처벌에 대한 민감성도 낮아, 공격적인 가해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냉담-무정서 특질과 가해행동의 관계를 검증한 선행연구를 개관해보면, 냉담-무정서 특질은 또래에 대한 신체적 폭력, 놀림, 괴롭힘과 같은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Viding, Simmonds, Petrides & Frederickson, 2009). 이와 유사하게 청소년의 높은 냉담-무정서 특질과 또래괴롭힘 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고(Geel, Toprak, Goemans, Zwaanswijk & Vedder, 2017), 냉담-무정서 특질이 또래괴롭힘에 영향을 미치고, 피해학생을 괴롭히는 데 영향을 준다고 보고되었다(Fanti & Kimonis, 2013). 또한 공감 및 냉담-무정서 특질과 학교폭력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 학교폭력 가해자 집단이 비가해자 집단과 비교해서 유의하게 높은 냉담-무정서 특질을 보였다(Zych, Tfofi & Farrington, 2019).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냉담-무정서 특질이 학교폭력의 가해행동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은 개인의 특성, 가정, 학교, 또래관계 등의 매우 다양한 요인이 결합하여 발생하는 복합적인 문제이고(Farrell, Henry, Schoeny, Bettencourt & Tolan, 2010), 가해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는 개인적 변인 이외에도 개인을 둘러싼 환경, 맥락적 변인들이 존재한다(김원영, 김경식, 2018; 이미영, 2017). 이 때문에, 높은 냉담-무정서 특질을 가진 청소년일지라도 여러 맥락적 요인들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가해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처럼 제 3의 변인이 냉담-무정서 특질이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소년의 가해행동을 감소시킬 보호요인들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졌고, 여러 연구에서 부모-자녀관계가 가해행동을 억제하는 보호요인으로 제안되었다(김원영, 김경식, 2018; 염숙현, 2015; 이세정, 고은숙, 이호준, 2018). 부모-자녀관계란 인간관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관계로, 초기 청소년기 자녀의 심리적 적응, 정서 발달을 포함하여 또래관계, 학업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소수연, 안지영, 양대회, 김경민, 2014). 또한, 부모-자녀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자녀의 공격성이 낮고 정서적 발달

이 잘 이뤄져 문제행동을 낮추는 등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다(김정화, 2015; 이정윤, 이경아, 2004; 장신재, 양혜원, 2007).

더욱이, 부모-자녀관계와 학교폭력 가해행동의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 부모와 자녀의 분쟁이 클수록 자녀가 또래를 더 많이 괴롭히는 반면, 자녀에 대해 부모가 지지적이고 권위적인 양육을 할 경우 자녀가 또래를 덜 괴롭힌다고 규명되었다(Baldry & Farrington, 2005). 또한, 청소년이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지각할수록 학교폭력 가해 경험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되었다(구자민, 2015). 이는 거부적이고 지나치게 권위주의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는 부모들은 문제해결 기술능력이 부족하고 타인의 공격에 대해 그와 동일하게 대응하도록 가르치기 때문에, 이러한 가정에서 자란 청소년은 자신의 공격적인 행동이나 공격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여기거나 피해 학생에 대한 감정이입이 저하될 가능성이 제안된다(Olweus, 1991). 반면, 부모가 온정적이고 수용적이라고 지각하는 청소년의 경우, 공격성이 유의하게 낮았고(이명자, 김영갑, 2018), 가족의 관심과 신뢰,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한 관계가 개인변인 다음으로 가해행동을 낮추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되었다(이세정 외, 2018). 이를 통해, 부모-자녀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청소년이 학교폭력 가해행동을 덜 할 것으로 유추된다. 이는 부모가 자녀에게 애정을 가지고 온정적인 태도를 보이면 자녀는 부모에게 수용된다고 지각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타인에게 친절한 반응을 보이기 쉽고(한세리, 2007), 부모의 반응적이며 지지적인 양육행동이 또래들과의 사회적 행동을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박보경, 도현심, 2002). 또한, 부모가 자녀에게 인간 지향적인 양육태도를 보일 때, 자녀는 타인의 생각이나 입장에서 반응하는 공감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다(박선하, 2014).

종합하면, 냉담-무정서 특질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피해학생에 대한 공감능력이 저하되어 학교폭력 가해행동을 더 많이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청소년이 부모와 친밀하고 부모가 자신에 대해 온정적이고 헌신하고 있다고 지각할수록, 개인의 공격성과 냉담함, 폭력성, 공감의 결여 정도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기존 연구들을 확인한 결과, 청소년의 냉담-무정서 특질을 다룬 국내의 연구는 소수지만 다양한 변인들과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가 시도되기 시작했다(송보경, 이주영, 2014; 심나영, 이소연, 2018; 이효신, 이강선, 2016; 하은혜, 김효은, 2017). 그러나 임상군에 속하거나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이 대부분인데, 임상군에 속하지

않는 청소년일지라도 냉담-무정서 특질을 지니고 있고(삼나영, 이소연, 2018), 냉담-무정서 특질이 일반 청소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통합적 탐색이 필요하다. 냉담-무정서 특질은 개인 내적 특성으로 변화되기가 쉽지 않은 변인이지만, 청소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인 부모-자녀관계가 청소년의 기질적인 특성을 완충할 것이라 추측된다. 만약 부모-자녀관계가 청소년의 냉담-무정서 특질과 학교폭력 가해행동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규명된다면, 심리치료 및 상담 장면에서 냉담-무정서 특질이 높은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를 개선하는 추가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뒷받침할 근거로, 유아를 대상으로 한 유관연구에서 부모의 온정적 양육이 자녀의 공격성, 냉담-무정서 특질과 서로 부적 상관관계를 이룬다는 연구 결과도 도출되었고(Fontaine, Rijdsdijk, McCrory & Viding, 2010; Waller, Hyde, Klump & Burt, 2018), 긍정적인 부모-자녀관계와 부모의 애정, 자녀에 대한 긍정적인 강화는 냉담-무정서 특질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되었다(Clark & Frick, 2018). 이는 냉담-무정서 특질이 있는 청소년일지라도 부모-자녀관계의 수준에 따라 냉담-무정서 특질이 조절되어 가해행동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관계의 수준에 따라 냉담-무정서 특질과 가해행동의 관계를 조절하는지를 확인하였다.

한편, 부모-자녀관계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제시된다(한세리, 2007; Biller, 1996). 부모의 양육행동 및 학교폭력의 경험에 대한 연구에서 청소년이 지각하기를 아버지는 어머니보다 더 애정적이고, 어머니는 자녀에 대해 성취추구적인 양육행동을 한다고 보고되었다(박경옥, 2005). 또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유관 연구에서 어머니보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허용적이라고 지각하는 경우가 많았다(김민정, 2003). 이는 부모의 성별에 따라 양육태도 자체에 차이가 있거나 청소년이 지각하는 양육태도가 다를 수 있고, 이것이 자녀와의 관계를 맺는 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하지만, 부모와 관련한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어머니의 영향을 위주로 검증하였고(석민지, 2014; 송유민, 2016; 신민진, 하은혜, 2010), 청소년의 학교폭력 가해행동과 부모의 관계를 설명하는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영향만 확인하였다(김두규, 강문숙, 2017; 박애선, 2016). 아버지가 자녀의 학교폭력 경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보고되면서(유청우, 2016; 최은지, 이승연, 2019), 어머니-자녀관계뿐만 아니라 아버지-자녀관계에서 각각

검증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에 더해,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성차를 고려하여 냉담-무정서 특질과 가해행동 관계에서 부모-자녀관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공격성 간의 관계를 검증한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남학생의 경우 부모의 양육행동이 긍정적이라 지각할수록 공격성이 낮았으나, 여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공격성 간의 관계는 유의미하지 않았다(한세리, 2007). 더욱이,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냉담-무정서 특질이 여아보다 남아가 더 높고(김다슬, 2018; Viding et al., 2009), 가해행동의 비율 역시 남아가 여아보다 더 높다고 보고되었다(조윤오, 2013; 한세리, 2007; Nation, Vieno, Perkins & Santinello, 2008). 이러한 결과는 냉담-무정서 특질이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남녀 청소년이 다른 양상을 보일 가능성을 나타낸다. 또한, 여학생의 학교폭력 가해와 집단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4), 가해행동 검증 시 성별을 고려하여 각 집단별 양상을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냉담-무정서 특질이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모-자녀관계의 조절효과를 검증할 때, 청소년의 성별도 추가적으로 고려하였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청소년의 냉담-무정서 특질, 학교폭력 가해행동, 부모-자녀관계의 관계를 밝히고, 청소년의 냉담-무정서 특질이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으며, 남녀 청소년 집단별로 냉담-무정서 특질과 학교폭력 가해행동의 관계에서 부모-자녀관계와 모-자녀관계의 조절효과를 파악하였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과 부산 지역에 소재한 4개의 중학교 1, 2, 3학년에 재학 중인 남녀 청소년 41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배포된 410부의 설문지 중 328부가 회수되었으며, 데이터 값의 표준화된 잔차의 절댓값이 3을 초과하는 경우 이상치로 판단하는 것에 기초해(이일현, 2014), 이상치로 판단된 응답(3부) 및 동의서가 누락된 경우(29부)를 제외한 296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성별 구성은 296명

중 남자 156명(52.7%), 여자 140명(47.3%)이었으며, 학년 구성은 1학년 43명(14.5%), 2학년 145명(49.0%), 3학년 108명(36.5%)이었다. 연구대상으로 중학생을 선정한 이유는 또래괴롭힘이 청소년 초기에 활발하다는 점(Olweus, 1993)과 중학교가 학교폭력의 심의 건수가 가장 많은 학급으로 나타난 점(교육부, 2018)에서 기초하였다.

## 2. 측정도구

### 1) 냉담-무정서 특질 척도(Inventory of Callous-Unemotional Traits: ICU)

청소년의 냉담-무정서 특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Frick(2003)에 의해 개발되고 권은정, 손애리, 황순택(2010)이 중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냉담-무정서 특질 척도(Inventory of Callous-Unemotional Traits: ICU)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2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측정 내용으로는 냉담성, 부주의/무신경, 감정표현 결여의 내용을 포함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냉담-무정서 특질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0점)’에서 ‘매우 그렇다(3점)’의 Likert 4점 척도로 평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총점을 사용하였으며, 전체 문항의 내적 합치도(Cronbach'  $\alpha$ )는 남학생은 .74, 여학생은 .72로 산출되었다.

### 2) 부모-자녀관계 척도

부모-자녀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최인재(2007)가 개발하고 타당화한 ‘한국형 부모-자녀관계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친밀, 헌신, 존경, 엄격의 4개의 하위 요인의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4단계 평정 척도로, 각 문항마다 부와 모를 구분하여 거의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그런 편이다(3점), 매우 그렇다(4점)를 부여하였고, 엄격 내용의 문항은 역산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가 부모-자녀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총점을 사용하였고, 전체 문항의 내적 합치도(Cronbach'  $\alpha$ )는 남학생의 경우 어머니는 .94, 아버지는 .94로 나타났고, 여학생의 경우 어머니는 .88, 아버지는 .92로 산출되었다.

### 3) 학교폭력 가해행동 척도

청소년의 가해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최은숙(1999)의 또래괴롭힘 척도와 이춘아(2001)의 또래 공격성 척도를 참고해, 김미경(2007)이 제작한 또래괴롭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가해척도 18문항과 피해척도 18문항의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해척도에는 신체적 폭행이나 언어적 협박을 포함한 직접적 괴롭힘 10문항, 친구관계 철수 및 사회관계 배제와 같은 간접적 괴롭힘 8문항이 포함되어 있고, 피해척도에는 직접적 피해경험 10문항, 간접적 피해경험 8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가해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고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5점)’의 Likert 5점 척도로 평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해척도에 해당되는 문항의 총점만을 사용하였다. 전체 문항의 내적 합치도(Cronbach'  $\alpha$ )는 남학생은 .82, 여학생은 .84로 산출되었다.

### 3. 자료분석

본 연구는 SPSS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자료를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의 인구학적 배경 및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정하기 위해 신뢰도 계수(Cronbach'  $\alpha$ )를 산출하였다. 둘째, 냉담-무정서 특질 총점과 부모-자녀관계 총점, 학교폭력 가해행동 총점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남녀 집단별로 각각 냉담-무정서 특질 총점을 독립변인으로, 학교폭력 가해행동의 총점을 종속변인으로 입력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남녀 집단별로 각각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난 조건의 유의성을 파악하기 위해 단순 기울기 분석을 실시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주요 변인의 기술 통계치를 분석하고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남자 청소년의 경우, 종속변인인 학교폭력 가해행동과 독립변인인 냉담-무정서 특질( $r=.23, p<.01$ )은 유의한 정적 상관을, 조절변인인 부-자녀관계( $r=-.24, p<.01$ ), 모-자녀관계( $r=-.26, p<.01$ )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남자 청소년의 냉담-무정서 특질이 높으면 학교폭력 가해행동이 높고, 부모-자녀관계가 좋으면 학교폭력 가해행동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독립변인인 냉담-무정서 특질은 조절변인인 부-자녀관계( $r=-.45, p<.01$ ), 모-자녀관계( $r=-.40, p<.01$ )와 부적 상관 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남자 청소년의 냉담-무정서 특질이 높으면 부모-자녀관계의 긍정적인 수준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자 청소년의 경우, 종속변인인 학교폭력 가해행동은 독립변인인 냉담-무정서 특질( $r=.30, p<.01$ )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그러나 조절변인인 부-자녀관계와는 유의한 상관을 나타나지 않았고, 모-자녀관계( $r=-.21, p<.05$ )에서만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여자 청소년의 냉담-무정서 특질이 높으면 학교폭력 가해행동이 높고, 여자 청소년과 모-자녀관계가 좋으면 학교폭력 가해행동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독립변인인 냉담-무정서 특질은 조절변인인 부-자녀관계( $r=-.29, p<.01$ ), 모-자녀관계( $r=-.30, p<.01$ )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여자 청소년의 냉담-무정서 특질이 높으면 부모-자녀관계의 긍정적 수준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의 상관관계 및 평균과 표준편차

(N=296)

변인	1	2	3	4
1. 냉담-무정서 특질	-	-.29***	-.30***	.30***
2. 부-자녀관계	-.45***	-	.70***	-.16
3. 모-자녀관계	-.40***	.78***	-	-.21*
4. 학교폭력 가해행동	.23**	-.24**	-.26**	-
평균(표준편차)	남 21.18(7.18)	66.21(10.97)	67.00(10.33)	22.64(7.18)
	여 18.84(6.89)	66.00(10.06)	68.95(7.91)	21.94(4.91)

\* $p < .05$ , \*\* $p < .01$ , \*\*\* $p < .001$

주: 좌측 하단: 남자 청소년(n=156)의 상관계수, 우측 상단: 여자 청소년(n=140)의 상관계수

## 2. 청소년의 냉담-무정서 특질과 학교폭력 가해행동의 관계

청소년의 냉담-무정서 특질이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냉담-무정서 특질 총점을 독립변인으로, 학교폭력 가해행동의 총점을 종속변인으로 입력하여 남녀 집단별로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분석을 실시하기 전, Durbin-Watson 지수를 이용해 잔차의 자기상관을 검정한 결과, 남자 청소년의 경우는 1.989, 여자 청소년의 경우는 1.855로 나타나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

청소년의 냉담-무정서 특질과 학교폭력 가해행동의 관계 (N=296)

종속변인	독립변인		<i>b</i>	<i>t</i>	<i>R</i> <sup>2</sup>	<i>F</i>
학교폭력 가해행동	냉담-무정서 특질	남	.15	2.77**	.04	7.69**
		여	.21	3.64***	.08	13.24***

\*\**p* < .01, \*\*\**p* < .001

남자 청소년의 냉담-무정서 특질은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b* = .15, *p* < .01), 이에 대한 설명력은 4%(*F* = 7.69, *p* < .01)였다. 이는 남자 청소년의 냉담-무정서 특질의 수준이 높으면 학교폭력 가해행동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자 청소년의 냉담-무정서 특질은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b* = .21, *p* < .001), 이에 대한 설명력은 8%(*F* = 13.24, *p* < .001)였다. 이는 여자 청소년의 냉담-무정서 특질의 수준이 높으면 학교폭력 가해행동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 3. 청소년의 냉담-무정서 특질과 학교폭력 가해행동의 관계에서의 부모-자녀관계의 조절효과

청소년의 냉담-무정서 특질과 학교폭력 가해행동의 관계에서 부모-자녀관계가 미치는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남녀 집단별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전

다중공산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인에 대해 평균 중심화(mean centering)를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인 냉담-무정서 특질 총점과 조절변인인 부-자녀관계(모-자녀관계) 총점을 투입하였고, 2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인 냉담-무정서 특질 총점과 조절변인인 부-자녀관계(모-자녀관계) 총점의 상호작용변인을 추가로 투입하였다. 이때, 조절변인인 부모-자녀관계 총점은 부-자녀관계와 모-자녀관계로 나누어 투입하여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남녀 집단별로 검증하였다. 그 결과, 남자 청소년의 냉담-무정서 특질과 학교폭력 가해행동의 관계에서 모-자녀관계만이 조절효과가 유의하였다. 반면, 여자 청소년은 냉담-무정서 특질과 학교폭력 가해행동의 관계에서 부모-자녀관계의 유의한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유의한 결과를 나타낸 변인들에 대한 결과를 아래의 표 3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3  
남자 청소년의 냉담-무정서 특질과 학교폭력 가해행동의 관계에서 모-자녀관계의 조절효과 (N=156)

종속 변인	단계	독립변인	$\beta$	$t$	$R^2$	$\Delta R^2$	$F$
학교 폭력 가해 행동	1	냉담-무정서 특질 (A)	.25	2.82**	.09	-	7.73**
		모-자녀관계 (B)	-.13	-1.42			
	2	냉담-무정서 특질 (A)	.21	2.38*	.11	.03	6.73***
		모-자녀관계 (B)	-.21	-2.17*			
		(A) × (B)	.18	2.09*			

\* $p < .05$ , \*\* $p < .01$ , \*\*\* $p < .001$

남자 청소년의 냉담-무정서 특질과 학교폭력 가해행동의 관계에서 모-자녀관계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냉담-무정서 특질과 모-자녀관계의 상호작용항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냉담-무정서 특질과 조절변인인 모-자녀 관계를 투입하였을 때, 냉담-무정서 특질과 모-자녀관계는 학교폭력 가해행동의 약 9%를 설명하였고( $F=7.73, p<.01$ ), 2단계에서 추가로 냉담-무정서 특질과 모-자녀관계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을 때 설명력은 11%로 증가하였다( $F=6.73, p<.001$ ). 2단계 검증에서 나타난 회귀계수의 유의성을 검토한 결과, 냉담-무정서 특질과 학교폭력 가해행동의 관계에서 모-자녀관계는 유의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18, p<.05$ ). 남자 청소년의 냉담-무정서 특질과 학교폭력 가해행동의 관계에서 상호작용 효과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회귀식을 이용하여 모-자녀관계의 평균값을 중심으로 표준편차  $\pm 1$ 의 값을 각 변인의 상, 하 수준으로 구분하고 이를 그래프로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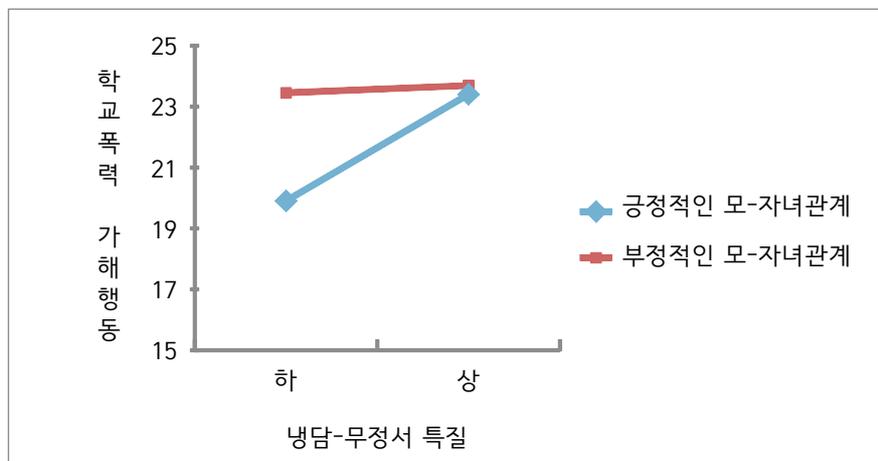


그림 1. 남자 청소년의 냉담-무정서 특질과 모-자녀관계의 상호작용 효과

그림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남자 청소년과 모-자녀관계가 긍정적인 경우(+1SD), 부정적인 경우와 비교했을 때 학교폭력 가해행동이 전반적으로 낮은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냉담-무정서 특질이 낮을 때만 모-자녀관계가 보호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냉담-무정서 특질이 높으면 모-자녀관계가 학교폭력 가해행동을 감소시키는 영향력은 미비하였다. 반면 모-자녀관계가 부정적인 경우(-1SD), 냉담-무정서 특질의 수준과 관계없이

학교폭력 가해행동이 높은 양상을 보였다. 더욱이, 모-자녀관계가 긍정적이라도 냉담-무정서 특질이 높으면, 학교폭력 가해행동은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냉담-무정서 특질이 높은 경우에는 남자 청소년과 어머니의 관계가 학교폭력 가해행동을 낮추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모-자녀관계와 냉담-무정서 특질 수준에 따라 남자 청소년의 학교폭력 가해행동이 상이한 양상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모-자녀관계가 어떤 조건에서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단순기울기 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모-자녀관계의 상호작용효과의 단순 기울기 검증 (N=156)

조절변인		<i>b</i>	<i>se</i>	<i>t</i>
모-자녀관계	평균+1SD	0.26	0.07	3.51***
	평균-1SD	0.02	0.09	0.24

\*\*\**p* <.001

표 4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남자 청소년의 냉담-무정서 특질이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단순기울기 검증 결과, 평균 + 1SD 집단에서는 모-자녀관계가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t=3.51, p<.001$ ) 반면, 평균 - 1SD 집단에서는 모-자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t=0.24, p>.05$ ).

## IV. 논 의

본 연구는 청소년의 냉담-무정서 특질이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냉담-무정서 특질과 학교폭력 가해행동의 관계에서 부모-자녀관계의 조절효과를 규명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부산에 소재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청소년 296명의 자료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 분석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주요변인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남녀 청소년의 냉담-무정서 특질이 학교폭력 가해행동과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의 냉담-무정서 특질의 수준이 높으면 학교폭력 가해행동도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연구 결과는 냉담성, 공격성 등의 개인 내적 요인이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김경미, 2014; 김원영, 김경식, 2018; 신성대 외, 2016; Munoz, Qualter & Padgett, 2011)를 지지한다. 또한, 남자 청소년의 경우 부모-자녀 관계가 학교폭력 가해행동과 부적 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가 긍정적일수록 학교폭력 가해행동을 덜 경험한다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한다(구자민, 2015; 이명자, 김영갑, 2018; Baldry & Farrington, 2005; Waller et al., 2018). 반면, 여자 청소년의 경우, 부-자녀관계는 학교폭력 가해행동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여자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관해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영향이 높은 것으로 유추된다. 이를 뒷받침할 근거로, 청소년의 학교적응 연구에서 부모 중 어머니의 애정적인 태도가 여자 청소년의 학교 친구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검증되었다(이상립, 2006). 더욱이,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부모 양육태도 차이와 관련한 연구에서,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부의 양육태도가 더 긍정적이라고 지각하였다(임정화, 전종설, 2012). 이를 통해, 여자 청소년은 아버지와 관계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고 추측된다.

둘째, 청소년의 냉담-무정서 특질이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남녀 청소년의 냉담-무정서 특질은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냉담-무정서 특질이 학교폭력 가해행동 및 또래괴롭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한 선행연구와(Fanti & Kimonis, 2013; Viding et al., 2009; Zych et al., 2019)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청소년의 냉담-무정서 특질이 높을수록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이 느낄 고통에 대한 공감능력이 낮고, 가해행동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거나 그것에 대한 징계나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 학교폭력 가해행동을 더 하게 되기 때문에 유추된다(Blader et al., 2013). 이처럼 냉담-무정서 기질과 같은 기질적 특성이 청소년의 학교폭력 가해행동을 시도하고 지속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라는 것을 재차 확인하였다.

셋째, 청소년의 냉담-무정서 특질과 학교폭력 가해행동의 관계에서 남녀 집단별로 부모-자녀관계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남자 청소년과 어머니의 관계 양상만이 냉담-무정서 특질이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효과의 유의성의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회귀식을 이용하여 그래프로 제시하고, 단순 기울기 분석을 실시한 결과, 남자 청소년과 어머니와의 관계가 긍정적인 경우 부정적인 경우보다 학교폭력 가해행동이 전반적으로 낮은 양상을 보이지만 긍정적인 모-자녀관계와 더불어 냉담-무정서 특질까지 낮은 경우에서만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완화되었다. 반면, 어머니와의 관계는 긍정적이나 냉담-무정서 특질이 높은 경우에는 어머니와의 관계가 학교폭력 가해행동을 완화시키는 영향이 미비하였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를 유추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사회통제이론에 따르면, 청소년이 부모와의 안정적인 애착 및 정서적인 유대감을 쌓으면서 형성한 내적통제 기제를 통해 반사회적인 행동을 억제한다고 제시한다(기광도, 2011; Catalano & Hawkins, 1996). 이러한 맥락에서 초기 애착을 형성하는 주 양육자인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정서적인 유대감을 형성한 남자 청소년은 내적통제 기제를 통해, 학교폭력 가해행동을 억제하는 경향을 보일 수도 있다고 추측된다.

또한,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억제시키는 요인으로 도덕성이 논의되어 왔고(최인재, 이기봉, 김청송, 김진호, 2010; 한세영, 2007; Frick & Dickens, 2006; Shulman, Cauffman, Piquero & Fagan, 2011), 도덕적 정서는 자신의 위반행위나 잘못을 인식할 때 발생하는 부정적인 정서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죄책감을 기본적으로 포함한다(김경희, 2002). 이러한 죄책감의 수준이 높으면 청소년의 공격성과 같은 문제행동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기도 하였다(김경연, 하영희, 2003). 이러한 죄책감은 부모와의 초기 관계 경험을 통해 발달하는 것(Tangney & Dearing, 2002)으로 특히, 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가 죄책감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었다(김형민, 2010; 윤선희, 2007). 이를 통해, 긍정적인 수준의 어머니와의 관계가 남자 청소년의 도덕성 및 죄책감 발달에 영향을 주어 학교폭력 가

해행동을 줄이는 것으로 유추된다.

한편, 남자 청소년의 냉담-무정서 특질의 수준이 높을 때는 모-자녀관계가 냉담-무정서 특질이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개인 변인군이 학교폭력 가해행동과 관련이 높고(최운선, 2005), 개인심리 변인군이 학교폭력 가해행동과 가장 큰 관련성을 있다고 보고한 메타분석 결과(김수진, 정종원, 2015)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 즉, 학교폭력 가해요인에서 환경적 요인인 가정요인에서 어머니와의 관계는 안정적일지라도 냉담-무정서의 기질적 특성이 강할수록 개인 내적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쳐 학교폭력 가해행동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냉담-무정서 특질은 개인의 선천적인 특성이며, 유아기와 같은 매우 이른 시기부터 나타날 수 있는 성격 특질(Kimonis, Frick, Cauffman, Goldweber & Skeem, 2012)이자 정신병질의 정서적 특성과 매우 유사한 개념으로 보기에(Gill & Stickle, 2016), 부모의 애정적인 양육과 같은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도 그 수준이 감소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유추된다. 이를 종합하면, 남자 청소년과 어머니가 맺은 관계가 긍정적인 경우에 냉담-무정서 특질과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완충할 수 있지만, 냉담-무정서 특질이 높으면 모-자녀관계의 완충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 가해자인 남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어머니와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이 하나의 치료적 접근일 수 있다.

한편 남자 청소년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으나, 냉담-무정서 특질이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남자 청소년과 아버지 관계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에 대해 유추해보면, 우선 청소년의 전반적인 생활에 있어 아버지, 어머니와 청소년 간 관계의 질에서의 차이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된다. 청소년은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와 심리적으로 친밀감을 더 가깝다고 보고된다(이주옥, 2008). 또한, 청소년은 어머니와의 의사소통보다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이 많을수록 청소년의 문제행동이 낮다고 보고되었다(남현미, 옥선화, 2001). 청소년과 어머니와의 관계가 아버지와의 관계보다 학교생활적응을 더 크게 설명한다고 보고되기도 하였고(고성희, 2009),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버지의 양육행동보다 청소년의 학교폭력에 미치는 영향의 효과크기가 더 크게 나타난다는 메타분석 결과(홍세림, 2017)도 있다. 이를 통해, 아버지와의 관계보다 어머니와의 관계가 청소년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영역에 영향력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과거보다 아버지의 자녀 양육 참여가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어머니가 청소년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기회가 많은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청소년과 상대적으로 상호작용 기회가 적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학교폭력 가해행동을 완충해줄 만큼의 효과를 나타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자 청소년의 경우 냉담-무정서 특질이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아버지 뿐 아니라 어머니와의 관계에서도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를 추측해보면, 첫째, 성별에 따른 학교폭력 발생 경로를 탐색한 결과, 남자 청소년은 공격성이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단편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은 반면, 여자 청소년은 더 다양하고 복잡한 갈등 상황의 영향을 받았다(조윤오, 2013). 이처럼 여자 청소년의 학교폭력 가해행동은 부모-자녀관계 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실제로 성별에 따른 학교폭력 유발 요인을 탐색한 연구에서, 여자 청소년은 비행교우와의 접촉이 학교폭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고 보고되었다(조윤오, 2013). 이를 통해, 여자 청소년의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부모의 영향 이외의 다른 맥락적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시사된다. 둘째, 여자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와의 관계가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 본 연구에서 남자 청소년의 경우 냉담-무정서 특질과 부모 자녀관계가 모두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자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는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부모애착과 남녀 청소년의 문제행동 관계에서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대한 부모애착의 영향력이 남학생보다 여학생에게서 낮게 나타난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송지영, 박성연, 2010). 또한 부모의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행동이 여자 청소년의 공격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결과(한세리, 2007)가 보고된 것도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대해 부모가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본 연구는 남자 청소년의 냉담-무정서 특질이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남자 청소년과 어머니의 관계가 조절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남자 청소년과 어머니의 관계가 긍정적인 경우가 남자 청소년

의 냉담-무정서 특질이 학교폭력 가해행동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고, 이러한 양상이 냉담-무정서 특질이 낮을 때 더 유의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이처럼 청소년의 냉담-무정서 특질이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청소년과 부모의 성별에 따른 관계 양상이 다른 역할을 한다는 것을 파악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학교폭력 가해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청소년 성별에 따른 개입의 필요성과 함께, 어머니와 자녀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의 증진에 초점을 두는 것의 중요성을 제기한다. 특히, 냉담-무정서 특질의 수준이 낮은 남자 청소년이 학교폭력의 가해행동을 보이는 경우, 모-자녀관계를 긍정적으로 증진시키는 치료적 개입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더불어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및 상담 장면에서 높은 냉담-무정서 특질을 지닌 가해 청소년을 스크리닝하여 그들이 타인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공감하려는 태도를 학습하기 위한 개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더욱이, 냉담-무정서 특질이 높은 청소년은 처벌에 대한 낮은 민감성을 보이므로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대한 처벌보다는 또래에 대한 이타적인 행동을 강화하는 방향의 접근이 학교폭력 가해행동을 낮추는 데 더 효과적일 것으로 시사된다.

결과론과 논의를 토대로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여자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는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여자청소년의 냉담-무정서 특질과 학교폭력 가해행동 관계를 조절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청소년의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한 선행연구(이용택, 이은경, 2014)에서 가족요인보다는 친구, 개인, 학교요인의 효과크기가 더 높게 나타난 점을 통해, 여자 청소년의 학교폭력 가해행동을 이해하는데 있어 부모 요인보다는 또래 관계나 교사 관계 등 다른 환경적 요인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시사된다. 이에 청소년의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대한 후속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영향을 주는 다른 환경적 요인들을 추가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의 하위요인들이 아닌 총점을 사용했기 때문에, 청소년과 부모-자녀관계의 어떤 양상이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 청소년의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탐색한 이전 선행연구(유청우, 2016)에서는 아버지가 독재적인 양육태도를 지닌 경우 자녀의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

면, 어머니는 온유적인 양육태도를 지닐 때, 자녀의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의 양상이 달랐기 때문에, 부모-자녀관계의 하위요인에 따른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관한 연구가 세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학년, 학교 규모, 소재 지역 등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측면 및 지역사회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여 그러한 요인들이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 파악할 수 없었다. 청소년의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다양하고, 개인, 가족, 학교 지역 사회와 같은 여러 요인들이 복합되어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이미영, 2017; Farrell et al., 2010).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 변인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인구사회학적 측면과 지역사회 측면을 고려하여 연구 변인 이외의 변인을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고성희 (2009). **한국형 부모-자녀관계 유형과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교육부 (2018). **2018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https://www.moe.go.kr>. 자료 연음.
- 교육부 (2019).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https://www.moe.go.kr>. 자료 연음.
- 구자민 (2015).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또래지지에 따른 학교폭력 가피해경험의 차이**.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기광도 (2011). 가정과 청소년 비행간의 관계분석: 사회통제이론을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 10(2), 3-24.
- 김경미 (2014). **학교폭력 가해행동을 한 남자 청소년의 경험: 근거이론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경연, 하영희 (2003). 죄책감, 도덕적 이탈 및 친구의 규칙위반성향과 청소년의 규칙 위반행동.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6(2), 39-43.
- 김경희 (2002). 한국 아동과 청소년의 도덕적 정서: 죄책감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5(1), 35-56.
- 김다슬 (2018). **냉담 무정서 특질과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 비행 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비교**.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두규, 강문숙 (2017). 어머니 애착과 학교폭력간의 관계에서 공감력의 매개효과. **학습자 중심교과교육연구**, 17(21), 81-98. doi:10.22251/jlcci.2017.17.21.81
- 김미경 (2007). **사회적 지지와 귀인 성향이 또래괴롭힘 가해 및 피해에 미치는 영향**.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민정 (2003).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 및 스트레스 대처행동 간의 관계**.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수진, 정종원 (2015). 초등학교폭력 가해 관련변인에 대한 국내연구 메타분석. **교육방법연구**, 27(4), 601-626. doi:10.17927/tkjems.2015.27.4.601
- 김원영, 김경식 (2018). 한국 청소년의 학교폭력 가해행동 관련 유발변인에 대한 메타 분석. **중등교육연구**, 66(3), 783-814. doi:10.25152/ser.2018.66.3.783

- 김정화 (2015). 중학생의 학업소진과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부모-자녀관계의 조절 효과. **한국청소년복지연구**, 17(2), 159-183.
- 김형민 (2010).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수치심과 죄책감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혜원, 이해경 (2000). 집단괴롭힘의 가해와 피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심리적 변인들.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1), 45-64.
- 김혜원 (2011). 집단따돌림과 집단괴롭힘에 따른 남녀 청소년들의 심리적 건강, 학교 인식 및 학교적응에 대한 구조분석. **청소년복지연구**, 13(2), 173-198.
- 권은정, 손애리, 황순택 (2010). 한국판 청소년 정서결핍 척도(K-ICU)의 타당화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8(2), 1-16. doi:10.35151/kyci.2010.18.2.001
- 남현미, 옥선화 (2001). 가족의 심리적 환경과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및 친구특성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9(7), 37-58.
- 문수연 (2018). **아동기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성인초기 우울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기 우울을 매개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경옥 (2005).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학교폭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원주시 중고교 재학생을 중심으로**. 상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보경, 도현심 (2002). 아동의 인성특성, 부모-자녀관계 및 부부갈등과 또래괴롭힘. **아동학회지**, 23(5), 51-64.
- 박선하 (2014).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선환 (2019). 국내외 학교폭력 예방 우수사례 분석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적용 방안 연구. **학습지중심교과교육연구**, 19(13), 653-676.
- 박애선 (2016).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학교폭력 피해경험에 미치는 영향: 또래애착관계의 매개효과. **한국웰니스학회지**, 11(1), 97-106.
- 석민지 (2014). **청소년이 지각한 모의 과보호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소수연, 안지영, 양대회, 김경민 (2014). 초기 청소년기의 변화에 대한 부모-자녀의 인식에 관한 연구: 청소년·부모 FGI를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22(1), 247-279. doi:10.35151/kyci.2014.22.1.011

- 송보경, 이주영 (2014). 냉담-무정서 특질과 자기애적 성격성향이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 및 성차. **한국임상심리학회지**, 33(3), 633-660.
- 송유민 (2016). **중학생이 지각한 모의 과보호가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과 우울의 매개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송지영, 박성연 (2010). 초등학교 아동의 부모애착과 친구애착이 남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1(3), 51-66.
- 신민진, 하은혜 (2010).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와 청소년 불안의 관계에서 부정적 인지의 매개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2), 459-477.
- 신성대, 성도경, 이지영 (2016). 학교폭력의 영향요인과 예방방안에 관한 연구: 중·고등학생 간 인식차이 분석을 바탕으로. **국가정책연구**, 30(3), 205-234. doi: 10.17327/ippa.2016.30.3.008
- 심나영, 이소연 (2018). 중학생의 ADHD증상과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의 관계에서 냉담-무정서 특질의 조절효과. **아동학회지**, 41(1), 1-11.
- 염숙현 (2015). **학교폭력 가해행동 유형별 요인에 관한 메타분석**.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유청우 (2016).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교폭력 가·피해 경험과의 관계**.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유형근, 이필주, 이동갑 (2018). 학교폭력 예방 및 개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23), 805-822.
- 윤선희 (2007). **모의 양육태도 및 죄책감 경향성과 자이존중감의 관계**.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명자, 김명갑 (2018). 학교폭력 가해청소년의 가정, 또래, 학교 요인에 대한 질적 분석.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8(2), 445-456. doi:10.35873/ajmahs.2018.8.2.044
- 이미영 (2017).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심리적 특성에 따른 유형 구분의 예측 변인 검증. **청소년시설환경**, 15(1), 37-50.
- 이상립 (2006). **부모의 양육태도가 중학생 자녀의 성격특성 및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세정, 고은숙, 이호준 (2018). 학교폭력 가해 청소년의 보호요인과 위협요인에 대한

- 영향.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2(5), 147-156. doi:10.21184/jkeia.2018.7.12.5.147
- 이용택, 이은경 (2014). 고등학생 학교폭력 가해행동 요인의 남녀 차이분석. **청소년 문화포럼** 37, 59-79.
- 이일현 (2014). **EasyFlow 회귀분석**. 서울: 한나래
- 이정윤, 이경아 (2004). 초등학생의 학교적응과 관련된 개인 및 가족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2), 261-276.
- 이주옥 (2008). 학년과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 및 가족 기능 지각의 차이. **육아지원연구**, 3(2), 99-116.
- 이춘아 (2001). **청소년의 또래공격성과 피공격성**.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호신, 이강선 (2016). 품행장애 청소년과 자폐스펙트럼장애 청소년의 냉담-무정서 특질.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5(3), 371-391. doi:10.15870/jsers.2016.09.55.3.371
- 이혜정, 위슬아, 김범준 (2015). 공격성과 비행에 관한 연구: 남녀 차이와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0(4), 675-695.
- 임정화, 전종철 (2012). 부, 모의 양육태도 및 의사소통이 남, 여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9(8), 169-190.
- 장신재, 양혜원 (2007). 부모-자녀관계, 우울 및 공격성과 학교적응 간의 구조모형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18(2), 5-29.
- 조아미, 조승희 (2007). 집단따돌림의 발달적 변화 및 집단따돌림 경험에 따른 심리적 특성의 차이. **청소년시설환경**, 5(3), 37-48.
- 조윤오 (2013). 성별에 따른 학교폭력 발생실태 및 유발요인 차이 분석. **청소년복지연구**, 15(1), 155-179.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4). **2014년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서울: 청소년폭력 예방재단.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7). **2017년 한국폭력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서울: 청소년폭력 예방재단.
- 최운선 (2005). 학교폭력 관련변인에 관한 메타분석. **한국가족복지학**, 10(2), 95-111.
- 최은숙 (1999). **집단따돌림 가해, 피해경향과 관련된 심리적 요인에 관한 일 연구**.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은지, 이승연 (2019). 초등학생의 성별에 따른 부/모의 폭력지지, 교사개입, 학급규준과 가해행동 간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26(3), 117-141. doi:10.21509/KJYS.2019.03.26.3.117
- 최인재 (2007). 한국형 부모-자녀관계 척도 개발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5(2), 45-56. doi:10.35151/kyci.2007.15.2.004
- 최인재, 이기봉, 김청송, 김진호 (2010). 청소년문제행동을 완화하는 보호요인에 관한 연구: 문제행동통제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0(12), 63-125.
- 하은혜, 김효은 (2017). 학교폭력 청소년의 부모 모니터링과 청소년의 냉담-무정서 특질에 따른 학교폭력 경험 유형의 차이.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지**, 12(1), 67-88.
- 한세리 (2007). **남녀 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학생의 공격성 및 학교폭력 경험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한세영 (2007). 초기청소년의 도덕적 정서와 공격성. **대한가정학회지**, 45(7), 17-33.
- 허혜경, 김혜수 (2010). **청년발달**. 서울: 학지사.
- 홍세립 (2017).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과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과의 관련성: 2005년부터 2016년 3월 국내학술지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Baldry, A. C., & Farrington, D. P. (2005). Protective factors as moderators of risk factors in adolescence bullying. *Social Psychology of Education*, 8(3), 263-284. doi:10.1007/s11218-005-5866-5
- Barry, C. T., Frick, P. J., DeShazo, T. M., McCoy, M., Ellis, M., & Loney, B. R. (2000). The importance of callous-unemotional traits for extending the concept of psychopathy to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9(2), 335. doi:10.1037/0021-843X.109.2.335
- Bender, D., & Losel, F. (2011). Bullying at school as a predictor of delinquency, violence and other anti-social behavior in adulthood. *Criminal Behavior and Mental Health*, 21(2), 99-106. doi:10.1002/cbm.799
- Blader, J. C., Pliszka, S. R., Kafantaris, V., Foley, C. A., Crowell, J. A., Carlson, G. A., Sauder, C. L., Margulies, D. M., Sinha, C., Sverd, J., Matthews, T. L., Bailey, B. Y., & Daviss, W. B. (2013). Callous-unemotional traits,

- proactive aggression, and treatment outcomes of aggressive children with 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52(12), 1281-1293. doi:10.1016/j.jaac.2013.08.024
- Billler, H. B. (1996). The father and personality development. In M. E. Lamb (Ed.),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 N.Y.: John Wiley& Sons.
- Catalano, R. F., & Hawkins, J. D. (1996). The Social Development Model: A Theory of an Antisocial Behavior. *Delinquency and Crime*, 149-197.
- Clark, J. E., & Frick, P. J. (2018). Positive parenting and callous-unemotional traits: their association with school behavior problems in young children. *Journal of Clinical Child & Adolescent Psychology*, 47(1), 242-254. doi: 10.1080/15374416.2016.1253016
- Farrell, A. D., Henry, D. B., Schoeny, M. E., Bettencourt, A., & Tolan, P.H. (2010). Normative beliefs and self-efficacy for nonviolence as moderators of peer, school, and parental risk factors for aggression in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Clinical Child & Adolescent Psychology*, 39(6), 800-813. doi: 10.1080/15374416.2010.517167
- Fanti, K. A., & Kimonis, E. R. (2013). Dimensions of juvenile psychopathy distinguish “bullies,” “bully-victims,” and “victims”. *Psychology of violence*, 3(4), 396. doi:10.1037/a0033951
- Fontaine, N. M., Rijdsdijk, F. V., McCrory, E. J., & Viding, E. (2010). Etiology of different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callous-unemotional trai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49(7), 656-664. doi:10.1016/j.jaac.2010.03.014
- Frick, P. J. (2003). The inventory of callous-unemotional traits. Unpublished rating scale, The university of New Orleans.
- Frick, P. J., & Dickens, C. (2006). Current perspectives on conduct disorder. *Current Psychiatry Reports*, 8(1), 59-72.
- Frick, P. J., & White, S. F. (2008). Research review: The importance of callous-unemotional traits for developmental models of aggressive and antisocial

- behavior.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9(4), 359-375. doi:10.1111/j.1469-7610.2007.01862.x
- Geel, M., Toprak, F., Goemans, A., Zwaanswijk, W., & Vedder, P. (2017). Are youth psychopathic traits related to bullying? Meta-analyses on callous-unemotional traits, narcissism, and impulsivity. *Child Psychiatry & Human Development*, 48(5), 768-777. doi:10.1007/s10578-016-0701-0
- Gill, A. D., & Stickle, T. R. (2016). Affective difference between psychopathy variants and genders in adjudicated youth.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44(2), 295-307. doi:10.1007/s10802-015-9990-1
- Kimonis, E. R., Frick, P. J., Cauffman, E., Goldweber, A., & Skeem, J. (2012). Primary and secondary variants of juvenile psychopathy differ in emotional processing.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Multilevel approaches toward understanding antisocial behavior: Current research and future directions*, 24(3), 1091-1103. doi:10.1017/S0954579412000557
- Munoz, L. C., Qualter, P., & Padgett, G. (2011). Empathy and bullying: Exploring the influence of callous-unemotional traits. *Child Psychiatry & Human Development*, 42(2), 183-196. doi:10.1007/s10578-010-0206-1
- Nation, M., Vieno, A., Perkins, D. D., & Santinello, M. (2008). Bullying in school and adolescent sense of empowerment: An analysis of relationships with parents, friends, and teachers. *Journal of community & applied social psychology*, 18(3), 211-232. doi:10.1002/casp.921
- Nansel, T. R., Overpeck, M., Pilla, R. S., Ruan, W. J., Simons-Morton, B., & Scheidt, P. (2001). Bullying behaviors among US youth: Prevalence and association with psychosocial adjustment. *Journal of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85(16), 2094-2100. doi:10.1001/jama.285.16.2094
- Nansel, T. R., Craig, W., Overpeck, M. D., Saluja, G., & Ruan, W. J. (2004). Cross-national consisten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bullying behaviors & psychosocial adjustment. *Archives of Pediatrics & Adolescent Medicine*, 158(8), 730-736. doi:10.1001/archpedi.158.8.730

- Olweus, D. (1991). Bully/victim problems among schoolchildren: Basic facts and effects of a school based intervention program. *The development and treatment of childhood aggression*, 17, 411-448.
- Olweus, D. (1993). *Bullying at school: What we know and what we can do*. Cambridge, MA : Blackwell.
- Shulman, E. P., Cauffman, E., Piquero, A. R., & Fagan, J. (2011). Moral disengagement among serious juvenile offenders: A longitudinal study of the relations between morally disengaged attitudes and offending. *Developmental Psychology*, 47(6), 1619-1632. doi:10.1037/a0025404
- Tangney, J. P., & Dearing, R. (2002). *Shame and Guilt*. NY: The Guilford Press.
- Viding, E., Simmonds, E., Petrides, K. V., & Frederickson, N. (2009). The contribution of callous-unemotional traits and conduct problems to bullying in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50(4), 471-481. doi:10.1111/j.1469-7610.2008.02012.x
- Waller, R., Hyde, L. W., Klump, K. L., & Burt, S. A. (2018). Parenting Is an Environmental Predictor of Callous-Unemotional Traits and Aggression: A Monozygotic Twin Differences Study.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57(12), 955-963. doi:10.1016/j.jaac.2018.07.882
- Zych, I., Ttofi, M. M., & Farrington, D. P. (2019). Empathy and callous-unemotional traits in different bullying role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Trauma, Violence, & Abuse*, 20(1), 3-21. doi:10.1177/1524838016683456

## ABSTRACT

### The moderating effects of the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 between male and female adolescents' callous-unemotional traits and bullying behaviors

Song, Youjung\* · Lee, Soye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oderating effects of the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 between male and female adolescents' callous-unemotional traits and bullying behaviors. The subjects comprised 296 middle school students located in Seoul and Busan. The students responded to a number of surveys; the Inventory of Callous-Unemotional Traits(ICU),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Instrument(PRI) and the Peer Victimization Scale.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using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by the SPSS 23.0 statistical program. In addition, graphical analysis and simple slope analysis were conduc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male and female adolescents' callous-unemotional traits showed significant effects on their bullying behaviors. Second, only a mother-male adolescent relationship showed a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le adolescents' callous-unemotional traits and bullying behaviors. Specifically, when the level of mother-male adolescent relationship was high, the effect of male adolescents' callous-unemotional traits on bullying behaviors was alleviated. This aspect was more prominent when the level of male adolescents' callous-unemotional traits was low. In conclusion, this study highlighted the importance of taking into account the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 when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callous-unemotional traits and their bullying behaviors. Therefore, programs which recognize gender differences and improve the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 may be more effective in reducing bullying behaviors, and this study suggests the need to consider the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 in addition to callous-unemotional traits.

Key Words: callous-unemotional traits,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 bullying behaviors

투고일: 2020. 9. 3, 심사일: 2020. 10. 28, 심사완료일: 2020. 11. 11

---

\* Department of Child Welfare and Studie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ookmyung Women's University The Institute of Child Studies